

어제부터 의대교수들 본격 ‘가운 탈의’

사직서 제출 한 달... 효력 발생 첫 날
‘빅5’ 뚜렷한 이탈 움직임 아직 없어
일각 “전체의 7%인 800여 명 불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반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 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당장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 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

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 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느니 애매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 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보현 기자

학교부터 불어오는 ‘인성교육’ 실천 바람

도교육청, 실천학교 대상 워크숍 진행
초·중등 학교급별 가정 등 실천 나눔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 실천학교 74교(초 25교, 중 32교, 고 17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180여 명 대상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학교 문화에 담기 ▲다함께 인성 함양 교육과정 실천하기 ▲초·중등 학교급별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천 나눔 ▲인성교육 일반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자치회 주도 감사 메시지 공모전 ▲따뜻한 아침집밥 ▲대원회의 인성 캠페인 등 인성 친화적인 문화의 기초를 쌓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인성 중심 ▲예술·체육 융합프로젝트 ▲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 ▲독서 프로젝트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천 사례도 공유한다.

이 밖에 부모님 자서전 발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봉사활동, 지역 대학과 연계한 성찰 프로그램 등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한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처럼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인성교육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교육과정 연계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강화, 가정 연계 인성교육 확대, 경기인성교육협의체를 통해 현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책 읽으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어요”

수원시, ‘시장님과 북적북적’ 개최
‘어린이라는 세계’ 도서 바탕 토론
인상 깊은 구절·경험 나누며 ‘소통’

수원시는 다음달 20일 일월수목원 숲정원에서 이계준 수원시장과 시민들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시장님과 북적북적’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이 시장과 시민들이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의견도 듣는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토론회에 참가할 시민

약 40명을 모집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빛북독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민소통과에 방문,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곁으로 다가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이가 공감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매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라는 세계’는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저자가 어린이들을 만나며 특유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한 수필로 2022년 아시아 북어워드 ‘올해를 빛낸 아시아의 책’에 선정된 바 있다.

장진 기자

‘중소기업 제품’ 아리랑 TV로 전세계 퍼진다

(106개국)

수원시, 12개 기업 선정 후 홍보 시작
생산 현장·제품연구 등 촬영·편집 방식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이 arirangTV(아리랑 TV 국제방송)로 전 세계 106개국에 방송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24 중소기업 아리랑TV 방송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모집해 12개 중소기업에 선정했으며, 홍보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영상은 전문가가 업체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대본,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이후 아리랑TV 제작팀이 업체를 방문해 제

품 연구, 생산 현장, 대표 인터뷰 등을 촬영하고, 편집 후 영어 더빙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지난 24일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썬리퍼) 코리아에서 첫 촬영을 했고, 오는 6월 5일까지 12개 기업에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아리랑TV 송출 영상제작·방송 지원사업’은 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관내 창업·중소업체 TV 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아리랑TV 방송 지원사업이 국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 기자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쌔쌔이가 바른기업**

삼성웰니스의원 강준식 대표

“삶의 일부인 나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의대생 시절부터 시작한 습관봉사
진료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랑 나눠
어려운 이 위한 꾸준한 도움 실천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뜻을 담은 삼성웰니스의원은 하남 지역사회에서 유소년부터 청장년,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꼭 필요한 주치의로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돕는 전문 진료 병원이다.

강준식 삼성웰니스의원 대표원장(사진)은 만성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의 자율신경 실조증상 환자들과 척추 관절 등 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또 소아과 전문의, 아동 발달 연구소장 및 센터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아동발달 클리닉을 운영하며 언어지연, 발달지연 아이들도 돌보는 아동발달 전문 치료도 함께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들도 진료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 원장은 평소 나눔에 적극적이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국내, 해외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나눔이나 기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 시절 새터민 학생 무료과외를 꾸준히 다녔고, 의사가 되어서도 인도, 베트남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명절마다 서울역에 노숙자 봉사를 다녔을 정도로 봉사는 삶의 일부라 여기며 살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웰니스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쌔쌔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국경없는의사회 등 다양한 기관에 정기후원을 지속하며 지난해에는 하남시장 표창까지 받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 적십자는 4종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 및 내부감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재무안정성, 효율성, 책무성 및 투명성 부문에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적십자의 ‘쌔쌔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정기적인 나눔 실천으로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이웃에게 희망을 더하고,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기업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참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031-230-1667)로 문의하면 된다.

즐거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을 꿈꾸게 하는 즐거운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미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아이와 참여하는 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신고를 한 활동인지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Youth Services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2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TEL 031)232-9383~5 FAX 031)232-9388 홈페이지 www.gysc.or.kr

SNS www.facebook.com/kgysc
블로그 blog.naver.com/kgyvc

